

월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교회를 갔다. 오늘 교회에서 가족의 날에 대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다. 5월은 가정의 날이라서 요즘 더 가족에 대해 애뜻해지는 기분이다.

어제는 아빠생일이어서 축하도 하고 케이크 먹고 좋은 식당에 가서 배블리 받들 먹었다.

아빠 편지에는 평소 아빠에게 자증이 많아진 나에 대해 반성하고 아빠에게 좀더 사랑을 주고 아껴 주겠다고 썼는데 이말은 꼭 지켜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할수 있는 기회였다. 교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 너무 먹고 싶었던 비빔냉면을 먹어서 행복했다.

6월인데 벌써 너무 더워서 여름에는 얼마나 더워질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밤늦게 반팔티셔츠를 입고 나가도 출근 커녕 더 알맞은 느낌이다.

낮부터 밤까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레슨을 받다 힘들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에 감사한다. 6월에 콩콩이 많아서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꼭 상을 타고 싶다. 연방에는 뛰어난 치는 남자가 열심히 피아노를 쳤는데!

그게 항상 나에게 자극제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고3 5월을 보강차게 보내구 싶다.